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 Study Korea 300K Project —

2023. 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현황 분석 및 진단	2
III. 2027년 비전 및 핵심과제	6
IV. 추진 과제	8
1. 유학생 유치관문의 혁신적 확장	8
2. 지역 수요맞춤형 인재 유치 및 정주 지원	12
3. 첨단·신산업 선도인재 전략적 유치	15
4. 글로벌 교육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유학저변 확대	18
5.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21
V. 향후 일정	23
[붙임1]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안)	24
[붙임2] 유학생 비자제도 관련 주요 개선사항	25
[붙임3] 글로벌대학 예비지정교 유학생 관련 추진과제	26
[붙임4] 세부 유학생 통계	27

I. 추진 배경

-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해외 우수인재 확보 경쟁 심화
 - 해외 각국의 유학생 유치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로 글로벌 선도국가의 행렬에서 앞서나갈 필요
 - * [英] '30년까지 유학생 60만명 및 연350억 파운드 투입 목표, [佛] '27년까지 유학생 50만명 및 비자취득 간소화 목표, [日] '33년까지 유학생 38만명 목표 등
 - 국내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이 창출하는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유학생 유치·양성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 △ 유학생 1인당 경제효과 : 1,617만원(등록금, 생활비, 체재비 등) ('22. 단국대 이재동교수팀 정책연구), △ 외국인 전문인력 1인당 총효과 : 145.7백만원(총생산효과 102.1백만원, 부가치효과 43.6백만원) ('13. 대구대)
- 인구절벽 위기 속 지역-대학의 유학생 유치 노력 절실
 -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은 지역대학부터 시작*되고 있어, 각 대학은 유학생 유치·양성을 통한 돌파구 모색 중**
 - * 최근 10년간('12년 대비 '22년) 대학 입학생 증감률(KEDI) : 【수도권】 4년제 △1.1%, 전문대 △26.1% 【비수도권】 4년제 △17.5%, 전문대 △35.5%
 - ** '23년 글로벌대학 예비선정 15교 중 외국인 유학생 유치계획을 제출한 곳이 12교
-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과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제고 필요
 - 주요 세계대학평가* 내 국제화지표 비중이 적지 않아 유학생 유치, 외국인 교원 확대, 국제연구 교류·협력 등 대학의 글로벌화 요구
 - * 평가항목(비중) : THE₄ 외국인학생비율(2.5%), 외국인교수비율(2.5%), 국제공동연구논문 발표비율(2.5%), QS랭킹₄ 외국인학생비율(5%), 외국인교수비율(5%), 국제연구네트워크(5%)
 - 우수한 석·박사급 인력유치로 대학의 교육·연구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으며, 국내·외 학생간, 대학간 교류 확대를 통해 글로벌 역량** 증진 필요
 - * '00년 이후 미국의 화학, 의학, 물리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약 40%가 이민자 출신('20. NFAP)
 - ** '22 CAMPUS ASIA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4.5점 만점) : '해외 국가 문화 이해'(4.3), '언어 이해'(4.1), '오픈마인드'(4.4) 등 글로벌역량 강화에 기여

⇒ 한국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대학의 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인재를 유치·양성하는 '글로벌 교육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 시급

II. 현황 분석 및 진단

- ❖ 국내대학 유학생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12년 86,878명 → '22년 166,892명)
 - 유학생의 출신 지역 및 전공 편중,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유치-교육-취업-정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전략 부재

□ 유학생 수 증가,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소규모

- (증가추세) 유학생은 '12년 유학생 유치 정책(Study Korea 2020) 이후 증가추세로, 코로나19 여파로 '19~'21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22년 회복
 - 학위과정생은 코로나19에도 지속 증가, 특히 전문대학은 '19년 대비 2배 증가

'12~'22년 유학생 수 추이 (KE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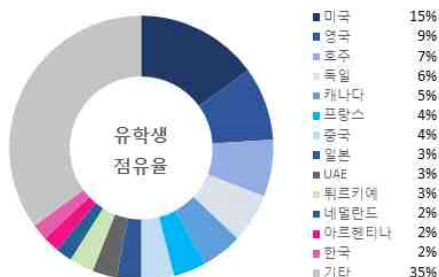


- (선진국 대비 열위) 전 세계 유학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22 2%)하며 유학생 출신국은 아시아 국가에 편중

- 전체 재학생 중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OECD 대비 낮은 상황

* 고등교육 학위과정 유학생 비율('22) : OECD 평균 ▲ 전체 6.6%, 학 4.9%, 석 14.3%, 박 24.3%
 미국 ▲ 전체 5.1%, 학 4.5%, 석 12.4%, 박 25.7% / 한국 ▲ 전체 3.7%, 학 3.3%, 석 10.6%, 박 16.7%

전 세계 유학생 대비 국가별 유학생 비중 (inbound) ('22. U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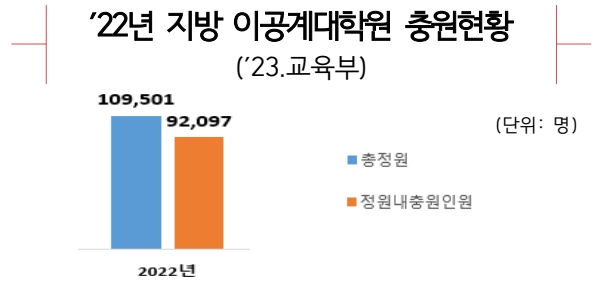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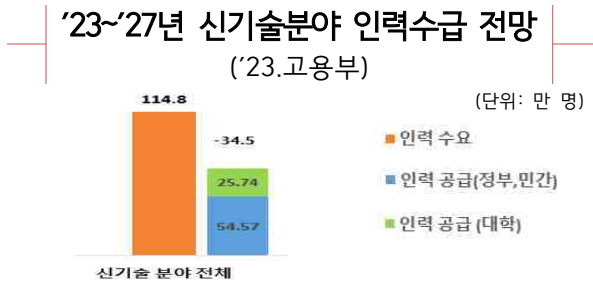
출신국가별 구성 ('22. KEDI)



□ 국내 이공인력 수급 위기에에도, 유학생 유치는 인문사회계열 등에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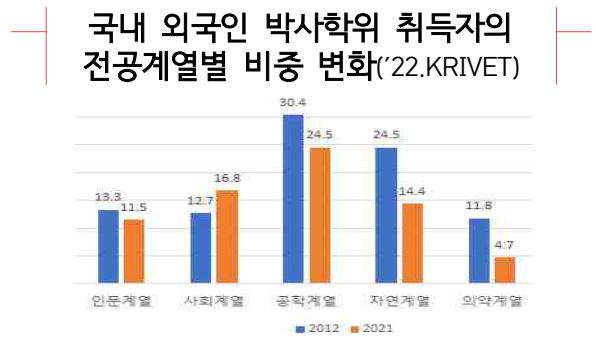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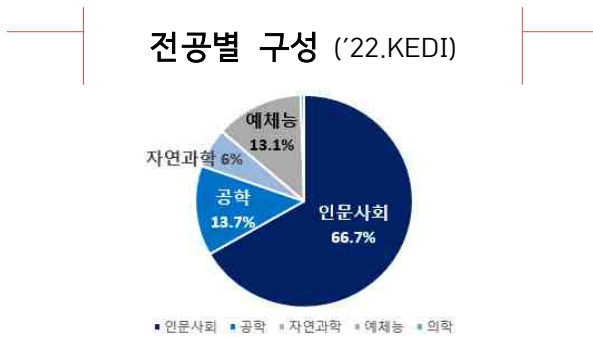
○ (국내 이공인력 수급 현황) 미래 성장동력 견인할 우수인재 부족현상 심화

- 특히, 첨단·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 인력은 부족(27년까지 34.5만명 부족) 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은 석·박사급 이공인재 수급상황 더욱 열악



○ (전공 편중) 이공인재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유치 결과는 인문 사회계열 (66.7%, 어학·경영학 등 전공)에 편중되는 경향

- 첨단산업 혁신을 견인할 우수 인재풀(pool)로 활용하기에 한계



□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저조, 국내 학생의 글로벌 역량 제고 요구

○ (국제경쟁력 저조) THE, QS랭킹 등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대학의 순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제화 경쟁력 미흡에서 기인

* QS랭킹 300위 내 국내 대학(8개교) 순위 하락('22→'23) : 유학생 비율(269~692위), 외국인 교수비율(399~694위), 국제연구네트워크(8교 모두 400위 이하) 저조가 주요 원인

○ (글로벌 역량 요구) 문화간 이해, 유연성, 글로벌화 이해 등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국내·외 학생 간 교류·소통 필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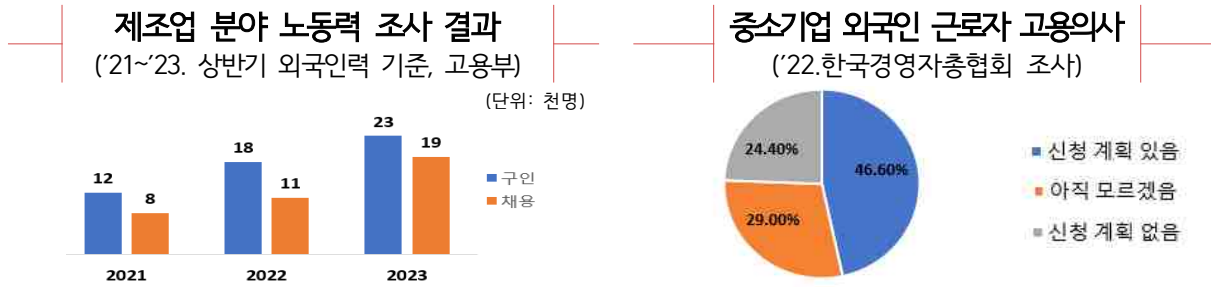
*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은 한국인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다문화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김성훈·이경화(교육문화연구, 2017), 최가희(한국심리학회, 2019))

* 대학생핵심역량평가(K-CESA) 결과, 유학생 수가 많은 대학(20위권 이상)의 대학생 글로벌역량(55.52점)이 전체 평균(50.22점)보다 높게 나타남('20~'22, KRIVET)

□ 지역 내 수요에 기반한 체계적 유치·양성 지원체계 부족

- (지역의 인재 수요) 지역에 소재한 조선업·중소제조업 등 국내 인력 부족 분야 중심으로 외국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3.상 직종별 산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고용부), 국내 제조업 외국인력 수요 2.3만명



- (개별대학 중심의 유치전략) 현행 유학생 유치는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 되지 않고, 개별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와 피리-아울러, 조직과 인력이 영세한 지역대학은 해외 정보 및 채널 부족 등으로 체계적 유학생 유치활동에 어려움 토로

<현장의 목소리 (권역별 간담회, '23.4월)>

- ✓ A 기업, “지역 산업계를 잘 아는 기관들이 유학생을 유치하고 교육 및 기업매칭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할 필요”
- ✓ B 대학, “유학생 유치만이 현 상황의 돌파구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현지 교육제도, 교육 기관 현황, 유학생정보 채널이 부족하여 쉽지 않은 상황임”

□ 대학에서 유치한 우수 인재의 국내 취업 및 정착 저조

- (취업·정주 현황) 졸업 후 진로는 본국귀국(29%), 국내진학(11%), 국내 취업(8%) 순으로, 국내 유학인재의 정착비율 저조

-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높은 취업 의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고급인력의 정착 유인이 크지 않아 실제 국내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음

* 대학원 졸업후 국내 진학 또는 취업 희망 비율('23, 전북대 윤명숙교수팀 정책연구) : 55.5%



- (취업·정주 지원 미진) 졸업 후 취업 의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정보 부족 및 유학생비자 활동 제한으로 현장실습 인턴십 등 진로탐색에 어려움
 - * 유학생들이 취업 준비 시 어려운 점('22. 전남대) : 취업정보 확보(24.1%), 언어능력부족(17.0%)
유학생들이 현재 받고 싶은 지원('20. 법무부, 복수응답) : 아르바이트·취업지원(44.4%)
- 내국인 연구인력 부족 및 해외진출 업무 활용 등을 위해 기업들도 유학생 채용을 희망하지만, 국내 유학생 정보 부족으로 매칭 미흡
 - * 기업의 석·박사 유학생 채용 수요조사('22. UST-KOITA) : 채용희망 기업비율 60%(vs. 실제 채용 24%), 채용 사유 1 연구인력부족(43%), 해외진출업무(43%) / 미채용 사유 1 국내 유학생정보부족(43%)

□ 유학생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부족

- (컨트롤타워 부재) 해외인재 적극 유치를 위해 교육부에 전담부서를 신설('23.5)했으나, 관련 기능과 정보가 부처별 산재* 되어 유기적 연계 부족
 - * 기본현황(교육부), 유학생 불법체류율(법무부), 과학기술인재 실태조사(과기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고용부), 해외한류실태조사(문체부), 첨단산업인력조사(산업부) 등
- (높은 입학장벽) 당초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도입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11~)'가 이제는 입학규제와 대학의 평가부담* 으로 작용

- 현장의 목소리('23.4월 권역별 간담회, '23.5월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 인증제의 TOPIK 기준, 인증제의 불법체류율 산식 등 추가 개선이 필요

 - * 평가지표 개수 1 【인증제】 학위 13개, 어학 10개 【비자발급제한대학 관련 지표】 학위 5개, 어학 5개
- (학업적응 지원 미흡) 학업적응과 정주에 한국어능력이 중요함에도, 유학초기 언어지원(영어·현지어과정* 운영)과 한국어능력 향상 기회 부족
 - * '2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결과 '우수인증대학(13개교)'의 경우에도, 전체 강의 26,382개 중 영어강의는 13%, 현지어강의는 1.2%에 불과
 - 만족도조사('23. 연구재단) 학업 중 어려운 점 : 1위 강의내용 이해(25%), 2위 수업시간 발표(23%)

< 시사점 >

- ✓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취업 및 정주까지 고려한 체계화된 유치 전략 마련
- ✓ 지역산업 첨단분야인재 등 맞춤형 인재 유치 및 학생교류 한국어교육으로 **신유학수요 창출**
- ✓ 지역기업·지자체 중심의 유치전략 수립 및 이를 지원할 범부처 지원체제 구축

Ⅲ. 2027 비전 및 핵심과제

비전

글로벌 교육선도국가로 도약! 유학생의 K-Dream 실현!

목표

2027년까지 30만 유학생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

추진 과제

유치

관문 확장

-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 한국교육원의 유학생 유치 전략기지화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추진
- 유학생유치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

학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산업인재
지자체거버넌스

지역맞춤형
유치전략 수립

- 한국어교육 강화
- 진로탐색기회 확대

첨단신산업인재
중앙정부 협의체

- 장학금 등재정지원
- 우수교수·연구인력유치
- 유학생인적네트워크 활용

- 내실있는
학습·연구환경 조성

新 유학수요 확대
해외협력

- 해외한국어보급
- 학생교류 등
잠재적 유학수요 발굴
- 아주배경 학생
한국어교육 및 진학컨설팅
- 교육ODA사업 재구조화
및 확대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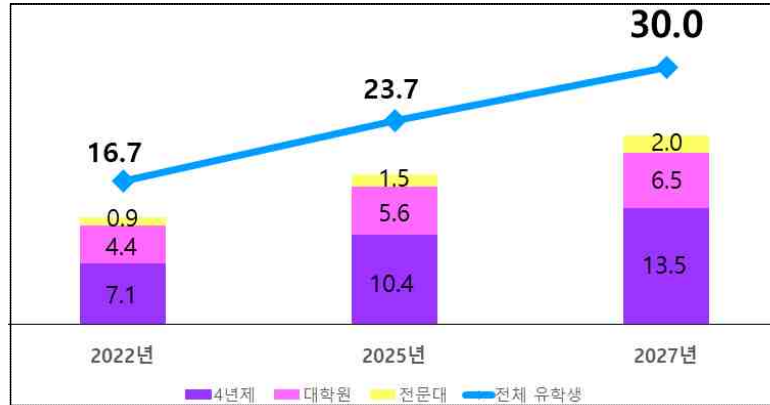
기업·업종매칭 및 취업연계 지원 강화

토대 구축

- 범부처협력체계 강화
- 데이터기반의
지원체계 구축
- 단계별 관리체계로
투명성 제고
- 글로벌 교육교류 강화
(국가 및 대학 수준)

참 고

❁ 2027년 유학생 유치 목표(2022년 대비, 만명)



- ✓ **학위** 유학생 22만 유치로 세계 10위권(유학생 수)으로 도약 : 124만명 ▶ **22만명**
- ✓ **비학위** 대학 간 학생·학점교류, 교육ODA 확대 등 : 4.2만명 ▶ **8만명**

❁ 기대효과 : 국가경쟁력 향상

- ✓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 외국인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첨단분야 산업 경쟁력 향상
 - ※ 외국인 출신 STEM 분야 노동자가 창출하는 노동 가치 : 연 367~409억 달러 (美 GDP의 약 1.7~1.9% 수준, '19 기준)로 추산('21. 美 과학기술정책연구소(STPI))
 - ※ 2000년 이후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유니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에 의해 창립·공동창립, 이러한 유니콘 기업의 1/4정도가 유학생 출신에 의해 설립('22. NFAP)
- ✓ **지역경제 활성화** 유학활동* 및 취업·정주**로 지역경제에 경제적 효과 창출
 - * △ 유학생 1인당 경제효과 : 1,617만원(등록금, 생활비, 체재비 등) ('22. 단국대 이재동교수팀 정책연구), △ 외국인 전문인력 1인당 총효과 : 145.7백만원(총생산효과 102.1백만원, 부가가치효과 43.6백만원) ('13. 대구대)
 - ** 지역 내 외국인주민 규모 1% 증가 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 0.21~0.23%가량 증가('20. 이민정책연구원)
- ✓ **대학경쟁력 제고** 우수 인재와 학술 다양성을 확보하여 연구경쟁력 및 세계대학평가 순위 향상, 학과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내국인에게도 교육 기회 확대*
 - * 대학은 유학생 유치로 인한 재정 확보를 통해 내국인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20. Bound et al.)
- ✓ **국제학생 역량강화** 국내·외 학생 간 교류 확대를 통해, 해외 국가의 문화·언어 이해에 기반한 세계관 확장 및 글로벌 감각 함양 가능
 - ※ Erasmus+ 프로그램은 졸업생의 고용가능성을 높였으며, Erasmus+ 졸업생의 90%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협업 능력이 증가했다고 응답('19. 유럽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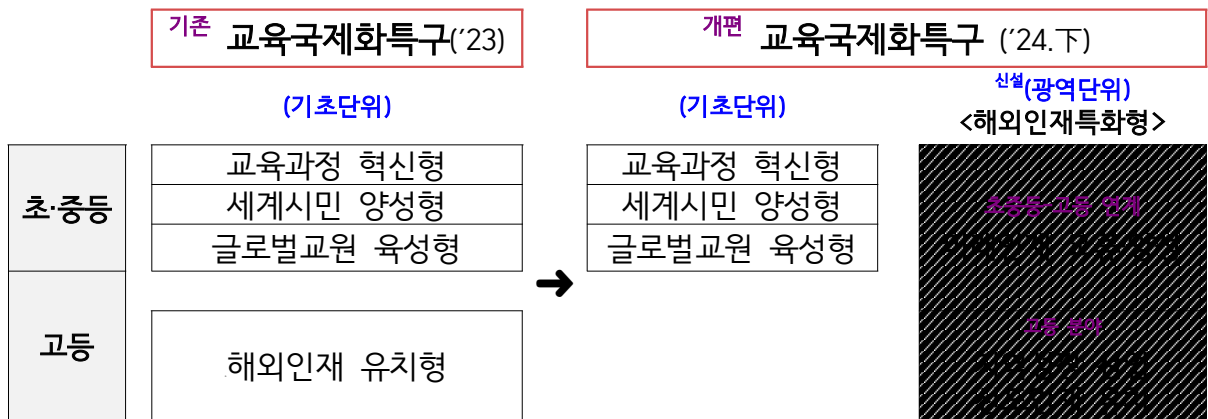
IV. 추진 과제

1. 유학생 유치관문의 혁신적 확장

❖ 유학생 유치 관련 특별지구 신설 및 입학장벽의 혁신적 타파

□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신설로 新유학수요 창출 신규 교육부·지자체

< 교육국제화특구 확대·개편(안) >



- (개요) 기존 기초단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확대·개편을 통해 新유학수요 창출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단위 '해외인재특화형' 지정
 - **고등** 지역 특화산업 기업과 연계된 맞춤형 유학생 유치·양성
 - **초·중등-고등** 한류(K-POP·한식 등) 및 IT·반도체 등 해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학생교류를 활성화하고, ODA사업 등과 연계하여 인재 유치·양성
- (신청주체) 광역단체장 - 교육감 또는 대학 공동 신청
 - ※ 신청 시, 대학-기업-지자체-교육청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전담 지원체계 구성이 필수, 단, RISE 시범지역은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유학생 유치 계획에 대한 컨설팅 실시 후 지정 검토
- (특례 신설) 대학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 도입
 -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23.下 발의예정)
- (취업 연계) 특구 내 유학생 유치단계 및 학업 과정에서 지역 내 기업 수요와 연계를 강화하고, 인턴십·현장실습 기회 제공을 통해 인력의 현장성 강화
- (재정지원) 특구의 투자계획에 따라 특교, 지방비, 교육청 재원 등 투입

□ 한국교육원의 유학생 유치 전략기지화 **신규** 교육부

- (유학생유치센터 설치)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하여 유학수요 발굴 및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추진
 - 전략 지역 내 한국교육원이 없는 경우, 재외동포청·KOICA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네트워크 구축
- (주요 역할) 유학수요 발굴, 유학 상담(학사·장학금 등), 국내대학-현지 대학 매칭, 유학박람회 지원 등 한국유학 one-stop 서비스 제공
 - 중장기적으로 한국교육원-국내 대학 간 MOU 체결을 통해 한국어과정 이수자 등 교육원장 추천자는 선발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내대학 입학 허용 검토
- (전문성 증진)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학생 유치지원 업무 전담 직원 배치, 필요시 민간전문가(대교협 등) 파견 추진
 - 잠재적 유학수요 발굴, 유학생 유치 및 글로벌 고등교육 국제협력 활성화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
- (한국유학 수요층 적극 흡수) 한국어 전문관 파견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한국어교육 제공, 한국(어) 관련 경험이 유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 현지 학교 한국어교육보급, TOPIK 등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와 연계
 - ※ 민간전문가 파견 근거 신설, 유학생 유치 기능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원 설치기준 정비 등을 포함한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23.下)

※ 【참고】 한국유학 다수요 국가 현황('22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일본	프랑스		러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호주
한국유학생	67,439	37,940	8,608	5,733	2,556	2,278	1,985	1,328	1,185	1,023	961	224
TOPIK 응시생	76,001	38,739	12,124	39,334	780	1,891	3,488	1,383	1,590	1,605	6,485	561
한국어반 학생	3,223	10,463	10,264	17,260	1,880	7,271	7,933	2,541	1,548	1,042	46,119	8,979
재외동포('21년)	2,350,422	156,330	175,865	818,865	25,417	17,297	168,526	10,674	13,667	109,495	18,130	158,103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검토 **신규** 교육부·법무부

- 유학생 유치단계에서 입학장벽과 평가부담은 대폭 낮추되, 질관리 차원에서 졸업요건 유지 및 컨설팅 강화
 - **평가체계** 대학유형별 특성에 맞게 4년제/전문대를 분리 평가
 - **평가지표** 한국어능력 입학요건 등 인증기준 개선 및 지표 수 감축
 - **평가적용** 허위자료 제출 등 인증제 부정 활용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 **질적제고**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희망대학에 대한 컨설팅 강화로 양질의 교육 지원

□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 **법무부·교육부**

- (비자유건 혁신) 지역대학의 유학생 유치 활성화, 유학생 진로탐색 기회 확대를 위해 유학생 비자 관련 규제 혁신 **신규**

<p>✓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기준 완화</p> <p>· 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기준 완화</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수도권)2만불 (지방)1.8만불</td> <td>(수도권)2천만원 (지방)1.6천만원</td> </tr> </tbody> </table>	기준	변경	(수도권)2만불 (지방)1.8만불	(수도권)2천만원 (지방)1.6천만원	<p>✓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유학활동 병행 허용</p> <p>·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하여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지원</p>
기준	변경				
(수도권)2만불 (지방)1.8만불	(수도권)2천만원 (지방)1.6천만원				
<p>✓ 유학생 한국어능력 입증방식 다양화</p> <p>· 유학생 한국어능력 입증방식 다양화</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TOPIK 성적 인정</td> <td>TOPIK 성적 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세종학당 이수 허용</td> </tr> </tbody> </table>	기준	변경	TOPIK 성적 인정	TOPIK 성적 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세종학당 이수 허용	<p>✓ 시간제 취업제도 개선으로 진로탐색 기회 확대</p> <p>·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확대 - 기존 주당 최대 25시간 ▶ 변경 최대 30시간</p> <p>· 인턴십 확대허용: 기존 학기중 전공연계 인턴십 ▶ 변경 방학 중에도 전공 외 분야까지 확대 허용</p> <p>· 현장실습 기회 확대(표준현장실습학기제) - 기존 주당 최대 25시간 ▶ 변경 최대 40시간</p>
기준	변경				
TOPIK 성적 인정	TOPIK 성적 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세종학당 이수 허용				

※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23.7.3. 시행)

- (대학입시 혁신) 유학생 특성에 맞는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규제 혁신
 - ※ 대교협·전문대교협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지침 개정('24.上)
 - **평가자료** 대학이 유학생의 다양한 학업배경과 한국에서의 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업계획서***를 입시 자료로 활용 허용
 - * 전공 선택 계기 및 한국에서의 학업 계획 등 대학 여건에 맞게 세부 항목구성
 - **모집시기** 해외고교의 학사일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모집시기**의 법적 근거 명확화
- (학사운영 혁신) 학사제도 혁신을 통해 대학의 국제교류 및 유학생 유치 활성화 노력을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혁파

대학별 혁신 제안 사례(글로벌 예비지정 대학 기획사례)

✓**전북대, O2O(Online-to Offline) 국제캠퍼스 구축**

- O2O국제캠퍼스 : (온라인 1년) 한국어·기초교과목 수강 + (전북대3년) 전공교과 수강
- 베트남국제캠퍼스 : 호치민-전북대-전라북도-전주시 공동운영

✓**경상국립대, 해외진출 기업 연계한 유학생 공동교육**

- 베트남-인도네시아 內 LG계열사와 연계한 유학생 공동 교육
- 방산수출국(폴란드,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인재 대상 장학금 지급, 정착유도

✓**포항공과대, P-GYL(POSTECH Global Young Leader) 발굴 및 영어공동화캠퍼스 구축**

- 해외 우수인재(P-GYL) 발굴·확보 및 국내유학 지원(R-GKS 장학금 지원)
- 전공 100%를 영어로 강의하는 영어공동화캠퍼스 구축, 외국인전용생활관 등 정주시설 확대

- **학사유연화**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사전승인제 폐지 및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유학생에 특화된 수업 운영 지원 **신규**

* 학과내 유학생만으로 구성가능한 '정원의 전담학과' 설치·운영을 허용('22.5월~)

- **공동교육** 대학 단독 또는 컨소시엄이 해외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대학별 강점을 연계한 양질의 교육 제공 및 유학생 유치비용 절감 **신규**

- **교육수출**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절차 간소화 및 해외캠퍼스 설치* 등을 통해 유학생 유치를 위한 현지 교두보로 활용 **신규**

* '23.9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추진

- (규제혁신 지속 발굴) 글로벌 대학 제안서(108개 대학 제출) 분석, RISE 체계 연계, 대교협·전문대교협 등 현장소통으로 규제혁신과제 도출

2. 지역 수요맞춤형 인재 유치 및 정주 지원

- ❖ 대학-기업-지자체 간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직업기술 및 한국어 등을 함께 교육함으로써 지역 산업수요에 적합한 정주형 인재 양성

① 유치단계

□ 지자체 중심, 권역별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교육부·법무부

- (협업체 구성) 대학협업체, 기업, 지자체 등이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 TF'를 구성하며, RISE 체계* 하에서 유학생 유치 확대 전략 마련
 - 해외인재 수요가 높은 기업·지자체의 유학생 유치·채용 노력을 전폭 지원
- *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자체 주도 대학지원체계로, '25년 전국 도입을 목적으로 7개 시범지역(부산, 대구,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운영

※ 지역기업·지자체의 자발적 유학생 유치·채용 노력 증가

- (부산) 부산시청·부산경제진흥원 및 지역기업(16개)이 함께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전북) 전북도청, 지역특화형비자사업과 연계하여 소멸지역 시군통합 취업박람회 개최

- (지역맞춤형 전략 설계) 유치부터 학업 및 진로설계까지 단계별 전략 수립
 - '해외인재유치전략TF'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중장기 인력수요를 예측, 이에 맞는 유학생 유치 분야·규모 및 전략국가 설정
 - 전략국가 소재 한국교육원과 연계·협력 또는 대학·지자체 자체 장학금 신설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유치·지원 전략 수립
 - (지자체 간 국제교육교류 지원) 지역 산업과 관련성 있는 해외 주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대학의 맞춤형 학과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 및 대학간 교류 확대
 - 중앙에서는 재외공관(교육원)을 통해 국내외 지자체 간 연결 및 학생교류, 대학간 국제협력, 현지 한국어교육 연계 등 업무협력 지원
- * 예) 경상북도-인도 우타르프라데시(UP)주 : 지역의 성장산업(전자정보기기, 미래차부품 제조) 관련, 현지 우수 학생의 유학·취업 및 한국어교육 증진→경북도청과 업무협약체결('23.5)
독일 헤센주·바이에른주 : 독일주정부·서울교육청 간 협력으로 현지 초·중등학교 학생교류 협력
- ※ '23.하반기부터 시도교육청·지자체와 해외 주정부 간 매칭 지원(~'24.上)

- (취업·정주 지원계획 연계) 기숙사, 스포츠센터 등 편의·복지시설, 취업박람회*, 일자리 정보 제공·알선, 창업 지원 등의 전략 수립·제공
- 지역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대학이 중심이 되어 유치·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 '24 교육부·RISE 시범지역 개최(3회) → '25 RISE와 연계하여 지자체 자체 추진

② 학업단계

□ 한국어교육 강화 지자체·교육부

- (권역별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대학 간 또는 대학·지자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 권역 내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집중 지원 신규
- 대학 내 우수한 한국어교육 시설 또는 지자체가 보유한 평생학습 시설(평생학습관, 다문화지원센터 등) 등을 한국어센터로 지정·운영
 - ※ 권역별 컨소시엄 주관으로 우수한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공동 구입 및 공유
 - * 대학(원)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 또는 국립대학육성사업비 등 활용 가능
- (교육 콘텐츠 보급) K-MOOC 유학생 대상 한국어·한국어 이해 강좌 확대로 유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고
 - ※ 예 대학원 외국인유학생 및 초청연구자 대상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한국학중앙연구원) 등
- (초기 이중언어교육) 입학 이후 1~2학기 동안 한국어·영어 교양과목 병행을 권장하여 유학 초기의 학업·생활 편의 지원 독려

□ 진로탐색 기회 확대 법무부

- (비자개선) 유학생 비자개선을 통해 재학중 인턴십·아르바이트 등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접근성 제고 신규

건	기 존	개 선
	최대 25시간	주 40시간 근무 가능
아르바이트	주중 최대 25시간(기준)	주중 최대 30시간(학사과정 기준)
인턴십	학기중 전공연계 인턴십만 가능	방학중 전공 외 분야도 가능

* 법무부, 유학생 비자(D-2) 지침 개정 ('23.7.3.부터 적용)

③ 취업연계 강화

□ 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취업지원 교육부·법무부·산업부·중기부·복지부

- (분야별 실무인재) 국내 인력부족 분야에서 필요한 실무인재 양성·취업을 집중지원하고, 지역수요를 고려하여 양성 분야 단계적 확대 추진
 - **뿌리산업** 주조, 금형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에 종사할 해외 인력을 확대 양성*하여 뿌리산업 인증기업에 취업 연계 지원
 - * [예]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수를 '23 9개 → '27 12개로 확대 지정
 - **조선 관련 산업** 정부 주관 조선업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이공계 학과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 확대 유도
 - * 조선업 취업요건 간소화('23.1월 발표) : [기존]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 실무능력검증 통과 → [개선] 실무능력검증 면제
 - **기타 지역산업** K-뷰티산업, 노인돌봄, 기타 제조업 등 국내인력이 부족한 지역 전략산업 관련학과에 유학생을 유치, 전문인력으로 양성
 - * 전주비전대-전북 전주시-(주)순바이오팜 업무협약 체결, 지역 전략산업 중 하나인 K-뷰티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베트남, 미얀마 유학생 유치 및 산업체험·취업 등 추진
- (저숙련·비전문 근로자) 저숙련·비전문 근로자(고용허가제, E-9)에게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대학 진학 및 학위취득 허용 **신규**
 - 지역 전문대학을 활용*하여 저숙련·비전문 근로자(E-9)가 주말·야간학업을 통해 학위를 취득, 숙련인력(E-7)으로 국내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 대학별 여건에 따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HiVE 및 LIFE 사업비 등 활용 가능
- (연구인력) 지역산업 관련 R&D 수행할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지자체 공동으로 '지역산업 특화형 대학원(캠퍼스) 및 연구소' 구축 **신규**

*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경북-봉화-대구가톨릭대-태산 등 5개 기업 MOU, '23.6월)

- 대구가톨릭대(봉화캠퍼스)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연구소가 학위과정 공동운영하여 해외 석·박사 인재 유치 → 산림자원에 기반한 메디푸드 스타트업 기업 육성

3. 첨단·신산업 선도 인재 전략적 유치

❖ '첨단분야 인재양성 특별TF*'를 통한 범부처 역량을 결집

* 첨단분야 인재양성 특별TF(팀장: 교육부 차관) : 기재부, 고용부,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1급 민간위원

❖ 첨단·신산업 분야 지원 확대 및 교육·연구의 질 제고

① 유치단계

□ 첨단·신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교육부·기재부

- (GKS사업 확대개편) 신기술분야 첨단학과 중심 'R&D 과정'을 통해 산업 수요가 높은 이공계 석·박사생 비율('22년 30%)을 '27년 45%까지 대폭 확대

※ 연간 GKS 총 수혜인원 : '22 4,543명 → '27 6,000명, 이공 석·박사 : '22 1,355명 → '27 2,700명

- 폴란드(방산), UAE(원전) 등 경험 수요가 높은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등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 장학생 선발 규모를 확대

- 공적 기금과 연계, 디지털 전환, 보건·의료 등 국가 전략산업 전문가의 단기 학위과정 신설 검토 신규

※ 예 석사학위 1년과정을 신설하여 한국수출입은행 EDCF 기금과 연계, 학비·생활비 등 지원

- (BK21 사업 확대) 4단계 BK21 사업 통해 해외 석·박사급 우수인재 유치

- 대학원 혁신지원사업비 확대*('22 529억원 → '23 807억원)를 통해 대학 차원의 세계화 전략에 맞는 우수 유학생 유치 및 연구 교류 등 지원

※ 예 글로벌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지원, 해외 우수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등

* 4단계 BK21 사업 예산 : '20 3,599억원 → '21~'22 4,081억원 → '23 5,261억원

<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 중 유학생 현황('22년, 단위: 명) >

전체 인원	출신국가					대학 소재지		전공분야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기타	수도권	비수도권	공학	자연과학	인문사회
6,115	2,025 (33.1%)	762 (12.5%)	559 (9.1%)	519 (8.5%)	2,250 (115개국)	3,578 (58.5%)	2,537 (41.5%)	3,036 (49.6%)	1,318 (21.6%)	1,293 (21.1%)

※ BK21 전체 참여대학원생('22) 40,900명 중 유학생은 약 15% 차지

□ 세계 정상급 연구·교수 인력 유치 과기부·기재부

- (신산업 우수인력 유치 확대) 박사급 이상 해외 우수 과학인재 유치
 - 박사급 이상 해외 우수연구자(Brain Pool) 및 신산업 분야 최정상급 과학자(Brain Pool⁺)가 국내 정주하면서 국내 연구기관과 공동연구하도록 지원
 - ※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예산 : ('22) 361억원 → ('23) 383억원(6.1%↑)
- (우수 교수요원) Top-tier 연구자의 국내 유입으로 우수 유학생 유치 촉진 신규
 - 첨단분야의 해외대학 전임교원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으로도 임용 (Joint Appointment)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 '21.3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외국인이 유망 클러스터* 내 대학에 교수 임용 시에도 소득세 50% 감면(10년간) 혜택 적용 추진('24~)
 -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해외인재 유치 선순환구조 확보 교육부·재외동포청

- (글로벌 유학생 네트워크 구축) GKS장학생*, BK21 참여대학원생 등 졸업생을 중심으로 국가별 인적 네트워크 형성·관리
 - 한국유학 졸업생들이 출신 국가의 인재들에게 한국유학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인재 발굴·추천할 수 있도록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
 - * '23.3.1. 기준 64개국에서 GKS동문회 운영
- (재외동포인재 D/B 구축) 국립국제교육원-재외동포청 협업 통해 첨단 분야에 종사하는 해외 한국인 인재 D/B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재외동포 첨단인재를 발굴, 국내 인재들과 교류·협업하는 연결핀 (linking pin)으로서의 역할 부여 및 국내 리턴(return) 유도
 - ※ 예 미국 내 인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대만 반도체 네트워크

② 학업 단계

교육부·과기부

- (영어트랙 확대) 미국 등 영어권 선진국 학생의 국내 유학을 유도하기 위해 영어강의 중심(50% 이상)으로 진행하는 영어트랙 확대*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해 영어강의 개설 현황을 공개**
 - * 국내대학 학과 9,843개 중 영어트랙 운영 학과 882개(9%) ('22. KEDI)
 -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 K스터디 > 대학검색 > “영어강의지원”에서 확인 가능
- (영어강좌 콘텐츠 보급) K-MOOC를 활용하여 석·박사 대학원생 대상 학술적 글쓰기, 연구윤리 및 실험실 안전교육 등 맞춤형 강좌 개발 보급 **신규**
- (유학생 전용 R&D사업) 졸업 후 한국에서의 계속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출신 신진연구자 전용 R&D사업 신설 추진('25~) **신규**

③ 취업연계 및 우수인재 정주 지원 강화

교육부·중기부·법무부·과기부

- (일자리 매칭)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수요와 이공(첨단)분야 석·박사 학위취득 유학생 간 취업 매칭('24~) **신규**
 - ※ 예) [단기] 기업 소재지·직종·복지 등 정보 및 유학생 구인 수요조사 → 대학을 통해 유학생에 안내 [중장기] 한국유학종합시스템 활용한 취업 정보 제공
- (과기인재 정착 지원)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을 위한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제도* 본격 시행('23.1~, 법무부)
 - * 과학기술인재가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영주·귀화비자 취득까지의 절차기간 간소화 (5단계, 6년 → 3단계, 3년)하는 제도
- (연구활동 지원) 국책연구기관 등에 채용된 해외 우수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사이언스 카드*' 우대 혜택 제공
 - * 교수·연구활동 관련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력에게 국내 체류기간, 가족초청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01~)

4. 글로벌 교육허브(Hub)로 도약하기 위한 유학저변 확대

- ❖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재외동포의 한국어교육 강화와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유학 유치 기반 마련
- ❖ 학생교류, 대학 간 연계·협력 등으로 잠재적 유학수요 극대화

□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 교육부·문체부·외교부·재외동포청

- (지역·국가 맞춤형 한국어교육) 북미·아세안 등 지역적 특색에 맞게 한국어교육을 확산하고 한국 유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 한국교육원(43개), 한국문화원(35개), 세종학당(248개소), 한글학교(1,465교)와 같은 현지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연계(²⁶ 초등 3~4학년 국어)하여 '27년까지 수준별·맞춤형 해외 디지털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신규**
- (한국어 전문인력 확대) 현지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어 전문관(교사) 등 파견 확대(²³ 15명 → ²⁷ 165명)
 - 현지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운영 및 교원 연수 지원, 국내 학교와 현지 한국어과목 개설학교 1:1 연계 및 학생교류 추진
 - ※ 해외 한국어 교육·보급을 위해 전문인력 배치 및 현지학교 지원 등 집중 투자(~'27년, 35백억원)
- (TOPIK체제 개편) 세계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학습·평가할 수 있도록 TOPIK을 민간 에듀테크 주도의 디지털 체제로 개발(~'26) **신규**
 - ※ 단기적으로 TOPIK 수요가 많은 아세안, CIS 국가 중심으로 시험 횟수 1~2회 추가 실시

	현 행 ('22년)	개 선 (안) ('27년)
시험 환경	▲ 오프라인 중심 시험	▲ 온라인 비대면·개별 평가
시험 횟수	▲ 국가별 연 1~3회	▲ 상시 평가
성적 확인	▲ 응시 후 발표일까지 45일 소요 ※ 답안지 배송 및 판독, 전문가 채점 등	▲ 응시 후 1주 이내 결과 확인 ※ AI 자동채점 등
학습 지원	▲ 기출문항 중심의 획일적인 학습 지원	▲ 학습과 평가가 연계되는 AI 활용 맞춤형 학습 지원
시행국/지원자	▲ 81개국 35만 명	▲ 100개국 100만 명

□ 잠재적 한국유학 수요 극대화 교육부

- (초·중등유학 저변 확대) 해외 청소년에게 학생·교사교류 등을 통해 한국 관련 경험을 조기에 제공하여 한국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교사교류** 이주배경 학생 출신 국가와 교사 교류 및 해외파견을 내실화 하여 현지교육 활동을 통한 잠재적 유학인재 발굴 및 유치 연계
 - * (교류) 말레이시아 등 7개국과 교류사업 추진 중('23. 176명) / (파견) 우즈베크 등 10개국 파견 중('23. 60명)
 - **학생교류** 국내-해외학교 상호결연 등을 통한 학생 단기교류* 또는 특성화고 중심으로 직업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동남아, CIS 등) 학생교류 확대
 - * 한국어교육 기반 온오프라인 학생교류 및 상호이해교육 등 교류협력 추진('24. 7개 시범교육청)
- (국내 외국인 등의 진학 확대) 이주배경·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 집중 교육을 제공하고, 진로멘토링 등을 통한 국내대학 진학컨설팅 실시 신규
 - **한국어교육** 한국어학급 수를 2배 이상('23 527개 → '27 1,200개) 확대하고 학생 개개인의 한국어 수준별 맞춤형 교재 개발·보급
 - **진로교육** 진로멘토링·캠프 등 학생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다국어 제공)과 연계하여 외국인학생의 국내 진학 유도를 위한 컨설팅 실시
 - * 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대학입학정보박람회 내 외국인학생 대상 부스 운영
 - * 외국인가정 자녀 수('22) : 32,678명(초 22,312명, 중 6,900명, 고 3,346명, 각종학교 120명)
- (교육ODA로 유학수요 창출) 교육ODA 전면 재구조화* 및 확대 개편을 통해 개도국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간·기관간 연계 강화 신규
 - * 예 국제기구(UN기구, IFFEd, WorldBank·ADB 등) 협력 등을 통해 개도국 인재 발굴 및 ODA 사업 연계
 - **직업교육** 아프리카 등 수원국의 노동시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기술 교육체계 구축 시, 학생 교류 등을 검토하여 국내 직업교육 유학수요 발굴
 - * BEAR 3단계 사업 :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4개국 대상 5년간('23~'27) 지원 예정
 - **디지털** 민간의 혁신성 등을 활용, 개도국 교육 환경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한국 온라인교육 접근성 제고를 통한 유학 유도
 - * 국가별 에듀테크 기반 수업 ODA 모델 개발('23.~) : (에듀테크 기업) 디바이스·콘텐츠 제공 + (KERIS) 정책가/교사 대상 현지 연수 → 수업모형 개발 → ODA 사업화 추진
 - **고등교육** 개도국 대학을 매개로 국내 대학과 세계 대학 간 다자 협력 관계를 통해 학생 및 교육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촉진
 - * 예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개편 통해 신규트랙^{기칭}(K-Tribound 트랙) 신설 추진('25년~) : 프랑스 A 대학과 국내 B 대학 간 협력을 통해 탄자니아 C 대학 지원

□ 국가 수준의 글로벌 교육교류 강화 교육부·산업부

- **(한·미 교류확대) 폴브라이트 첨단분야 장학 프로그램**(15백만불/200명) 신설, 인턴십·현장견학, 한국이해 등 양국 각 2,023명 교류 추진 **신규**
 - ※ 한미 정상,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New Educational Exchange Initiative)」 합의('23.4.26.)
- **(한·일 교류확대) 고교생부터 대학(원)생 등 청년교류를 확대하고, 단기교류, 인턴십, 학위과정 등 프로그램 다양화**
 - ^韓전경련-^日경단련 공동 '미래 파트너십 기금' 활용 등 민간 연계 **신규**
 - ※ ^{가칭}한·일형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교육교류 활동 강화 검토
- **(국제행사 성과 확산) 해외 대학총장 협의, 국제 컨퍼런스·엑스포, 우수 프로그램 공유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주관·참여하여 인재 교류의 디딤돌 구축**
 - * 글로벌 교육·혁신 씨밋(GEIS, '23.9월), 한·중 대학총장 포럼('23.下), 글로벌 인재포럼('23.下), 국제교육협회 컨퍼런스('23.5월 NAFSA(북미), '23.9월 EAIE(유럽)) 등
- **(세계대학평가 경쟁력 확보) (전문)대교협 등과 협력, 세계대학평가기관에 국내대학 교육·연구 성과 및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해외 대학과의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

- **(학위·학생교류 확대)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및 학생교류 활성화**(교환학생, 씬머스쿨 등)를 통해 상호이해 증진 및 교육협력 네트워크 형성
 - ※ 예 AIMS : 한-아세안 학부생 교류 프로그램(²³ 240명, 14.5억원)
- **(대학원 글로벌 네트워크) G7국가, ODA중점협력국 등 주요 협력국 대상 석·박사급 유학생 초청으로 한국 지역전문가 육성 및 융합학문 경쟁력 향상**
 - ※ GKS 글로벌 네트워크 과정 신설 : (첨단분야 외) 융합학문 중심 트랙 운영
- **(전문대 국제적 위상 제고) 전문대의 직업교육기관으로서 강점을 집중 홍보**
 - 전문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확대, 전문대-아세안 직업교육기관 간 교류 등을 통해 국내 직업교육 노하우 전수 **신규**
 - * 교류분야 : 메카트로닉스, 농·축어업, 멀티미디어, 서비스·관광 등 전문기술 중심
교육과정 : 지역 산업 중심의 현장실습 및 산업체 연계 교육 등 포함

5.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 ❖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추진체제를 구축
- ❖ 원스톱 유학정보서비스 등 데이터 기반의 유학생 정책 지원체계 마련

□ 범부처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교육부·법무부·산업부 등

- (컨트롤타워 구축) 사회부총리 부처 중심의 협의체를 통해 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한 전략 논의, 협업과제 발굴 등 추진('23.下~) 신규
 - 지자체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및 해외인재유치전략TF 중심으로 지역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협력
 - 중앙정부 「첨단분야 인재양성 특별TF」를 통해 범부처 협력으로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 및 교수·연구 인재 유치
 - ※ 과제별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사회관계장관회의, 인재양성전략회의 등 활용)
- (유학생 D/B 구축) 전문기관(KEDI 등)과 3년마다 유학 단계별 정책 데이터를 수집·분석('24~)하여, 지자체 등의 합리적인 유학생 정책 지원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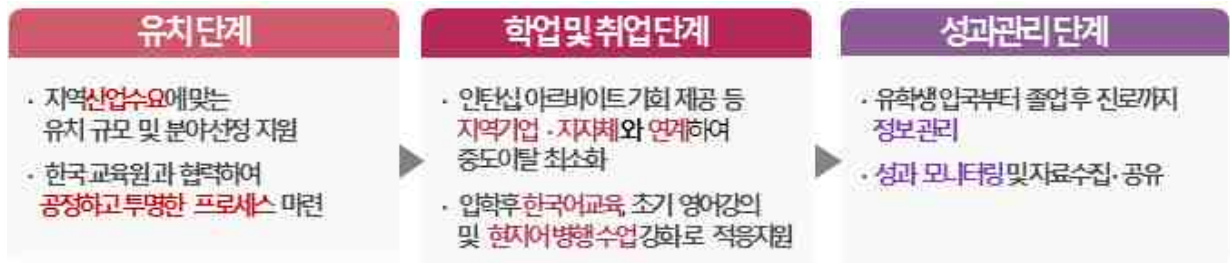
유학생 실태조사 항목(안)

- ▲ ① 학생
 - 입학전 한국 선택 이유, 한국어 공부 방법, 유학 정보 수집 방법 등 →
 - 재학중 학업 시 어려운 점, 거주지 유형, 학비 마련 방법, 교육환경 만족도 등 →
 - 졸업후 졸업 후 진로, 취업 준비방법, 취업직종 및 정보습득 방법 등
- ▲ ② 대학
 - 기숙사 유무, 유학생 전담직원 유무, 한국어교육 멘토 유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진로 및 취업 지도 현황 등

□ 단계별 관리 체계로 투명성·신뢰성 제고 교육부·법무부

- (유치단계 투명성 제고) 한국교육원을 통해 대학간 매칭, 교육원장 추천 등으로 투명한 유치·선발 통로를 마련하여 편법·불법적 유치 차단
 - ※ 위법·부정행위 발생 시 수사의뢰 및 엄중 조치
- (입학 단계 적응지원) 대학이 유학생의 조기 학업적응을 위해 초기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입학 후 한국어교육 및 학업적응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
 -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등을 활용하여 대학의 유학생 학업적응 지원을 강화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신뢰도 제고) 허위자료 제출 등 인증제 부정활용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하고, 컨설팅 강화로 인증대학 질 유지

- (지역맞춤형 인재 성장 지원) 지역기업 및 지자체 수요 맞춤형 교육, 한국어교육 강화 등으로 학업의 현장성과 질을 높이고 졸업후 진로와 연계



□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체계의 내실화 교육부 등

- (협력체계 구축) 국립국제교육원 내 ‘(가칭)스터디인코리아센터’를 설치, RISE 센터, 한국교육원, 대학 등과 연계하여 유학생 유치활동을 체계적 지원 신규
 - 아울러, (가칭)스터디인코리아센터를 중심으로 대교협·전문대교협과 협력하여 유학수요가 많은 아세안·CIS 국가 등의 주한대사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 아세안, CIS 국가의 주한대사를 초청, ‘한국유학의 밤’ 추진
- (원스톱 유학서비스 제공)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유학 준비단계부터 통합적 정보 제공(~'24) 신규
 -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상 유학 관련 정보는 다중언어(28개 언어)로 제공 중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개편 후 모습(안)



- 입학에 집중된 유학생 상담콜센터를 시도별 RISE 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정주 지원까지 안내하는 온라인 상담센터*로 확대 개편
 - * (현행) 8개 언어로 평일 상시운영 → (개선(안)) 온라인 상담 상시 운영
- (유학박람회 확대) 국립국제교육원-한국교육원 협업하여, 온·오프라인 유학 박람회, 주재국 학교에 ‘찾아가는 한국유학 설명회’ 등 정기적 홍보 추진(24~)
 - * 유학수요가 많으나 한국교육원이 없는 지역(인도네시아 등)은 현지공관 또는 인근 거점 한국교육원과 함께 유학박람회를 개최하여 유학 잠재수요 발굴

V. 향후 일정

□ 정책 설명 및 홍보

- 외국인 유학생 대상 간담회(9월 초)
- 권역별 대학, 지역기업, 지자체 대상 정책설명회(9월 중)
- 재외공관·한국교육원, 한국어사업 및 한국유학 홍보('23.下~)
 - ※ 아세안, CIS 국가의 주한대사를 초청, '한국유학의 밤' 개최

□ 법령 및 지침 등 개정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23.下)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下)
-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개편방안 마련(~'24.上)

추진 과제	소관 부처	일정
① 유학생 유치관문의 혁신적 확장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교육부·지자체	~'24.下
한국교육원 유학생유치센터 설치	교육부	'24.上~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교육부·법무부	'23.下~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학사운영 혁신	교육부	'23.下~
② 지역 수요맞춤형 인재 유치 및 정주 지원		
유치단계		
지자체 중심, 권역별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	'24.上~
해외인재유치전략TF 구성	지자체	'24.上~
학업단계		
권역별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등 한국어교육 강화	지자체·교육부	'24.上~
K-MOOC 강좌 개발·운영	교육부	'24.上~
진로탐색 기회 확대	법무부	'23.下~
취업연계 강화		
분야별 실무인재 양성	교육부·법무부·산업부·중기부·복지부	'23.下~
저숙련 근로자 학위취득 허용	법무부	'23.下~
③ 첨단·신산업 선도인재 전략적 유치		
유치단계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개편	교육부	'24.上~
4단계 BK21사업 확대	교육부	'23.下~
해외 우수연구자 등 연구활동 지원 확대	과기부·기재부	지속
해외 첨단분야 전임교원의 국내대학 임용(JA) 허용	교육부	지속
유학생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교육부·재외동포청	'23.下~
학업단계		
영어트랙 확대 및 홍보	교육부	지속
유학생 출신 신진연구자 전용 R&D 신설	과기부·교육부	'25.上~
석·박사 유학생 대상 영어강의콘텐츠 개발·보급	교육부	'23.下~
취업연계 및 정주 지원 강화		
이공계 석·박사생 일자리 매칭	산업부·중기부·교육부	'24.上~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운영	법무부	지속
④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유학저변 확대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		
해외 한국어교육 보급 확대	교육부·문체부	지속
한국어능력시험(TOPIK) 체제 개편	교육부	~'26.下
잠재적 유학수요 극대화		
초·중등학교 학생·교사 교류 확대	교육부·교육청	지속
국내 외국인의 한국어 집중교육 등 학업·진학 지원	교육부	'23.下~
교육ODA 재구조화	교육부	'24.上~
국가·대학 간 글로벌 교육교류 강화		
한·미/한·일 교류 확대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교육부·산업부	'23.下~
전문대·아세안 직업교육기관 교류사업(TVET) 신설	교육부	'24.上~
수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범부처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사회부총리 중심 컨트롤타워 구축	범부처	'23.下~
유학생 실태조사 실시	교육부	'24.上~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체계 내실화		
국립국제교육원 내 (가칭)스터디인코리아센터 설치	교육부	'24.下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전면 개편	교육부	~'24.下
한국유학박람회 확대	교육부	지속

		전문기술 인재	소멸지역 정주 인재	첨단분야 우수 인재											
유학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비자발급 시 재정능력심사 완화(2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소재지 등 고려하여 유학경비 심사기준 완화 수도권 2만불, 지방 1.8만불 → 수도권 2천만원, 지방 1.6천만원 · 한국어능력 입증방식 다양화(2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PIK 성적 +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 세종학당 이수 													
	학업·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숙련·비전문 근로자(E-9) 대상 야간·주말학업 및 학위취득 허용(2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전문대학 등을 활용하여 학위취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적 연구활동 허가(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취업 허가(학업연계) 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학업무관) 등으로 대학 외 연구활동도 허용 -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전문직종 분야 인턴활동도 일부 허용 											
	진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D-2) 재학 중 진로탐색 기회 확대 제공(23.7)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건</th> <th>기 존</th> <th>개 선</th> </tr> </thead> <tbody> <tr> <td>현장실습</td> <td>최대 25시간</td> <td>주 40시간 근무 가능</td> </tr> <tr> <td>아르바이트</td> <td>주중 최대 25시간(기준)</td> <td>주중 최대 30시간(학사과정 기준)</td> </tr> <tr> <td>인턴십</td> <td>전공과 연계된 인턴십만 가능</td> <td>방학 중 전공 외 분야도 가능</td> </tr> </tbody> </table>			건	기 존	개 선	현장실습	최대 25시간	주 40시간 근무 가능	아르바이트	주중 최대 25시간(기준)	주중 최대 30시간(학사과정 기준)	인턴십	전공과 연계된 인턴십만 가능
건	기 존	개 선													
현장실습	최대 25시간	주 40시간 근무 가능													
아르바이트	주중 최대 25시간(기준)	주중 최대 30시간(학사과정 기준)													
인턴십	전공과 연계된 인턴십만 가능	방학 중 전공 외 분야도 가능													
취업 및 정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취득자 조선업 취업요건 간소화(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요건 및 실무능력 검증 삭제 · 중소기업·전문인력 비자발급 임금요건 완화(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요건 차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방문동거자(F-1)의 체류자격 외 활동 확대(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가족 등 방문동거 소지자 취업 활동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 전문인력 네거티브 방식 비자 신설(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분야 종사자 대상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2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소멸지역에 일정 기간 취업·정주한 외국인에게 장기거주비자(F-2)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의 거주 영주귀화 절차 간소화 												

붙임3

글로벌대학 예비지정교 유학생 관련 추진과제

연번	대 학 명	주요 추진 과제
1	강원대· 강릉원주대	· 자매도시에 현지 KNU문화원 설립·운영, 외국인 대학원생 입학정원 확대 · 글로벌 온라인 학위과정 확대 및 한국어과정 운영(원격교육센터), RC기반 프로젝트 집중학기 및 한국어·문화 집중교육(집중교육센터)
2	연세대 미래캠퍼스	· 연세의료-AI산학융합지구 기반으로 인턴 2년-취업 5년으로 연계 되는 근로 연계형 외국인 입학 특별전형 신설
3	경상국립대	· 베트남-인도네시아 LG계열사(7개)와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 공동교육 실시 및 해양조선사업-창원국가산단과 취업 연계 · 방산수출국(폴란드 등) 인재에게 Fullbright 수준의 장학금 지급
4	인제대	· 김해 특화분야(의학 등) 전공교육과정 운영(전공기초+언어+문화, 지역기업·연구소·혁신기관 실습) · 무료 원격 언어교육 및 국가자격시험·수강료·교재비 지원, 기숙사 제공
5	안동대· 경북도립대	· 한국국학진흥원 공동으로 ^(국내) 한국문화어울림센터, ^(미국·유럽) 한국문화센터 설립하여 K-콘텐츠 기반 인문 유학생 유치 · 경북소재 대학 유학생 정착 지원을 위한 글로벌 한국학당 운영
6	포항공과대	· P-GYL(POSTECH Global Young Leaders), R-GKS(Regional Global Korea Scholarship) 등 해외인재 발굴·유치·가족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전공 100% 영어 진행하는 영어공용화캠퍼스 운영, 외국인전용 생활관 및 지원센터 제공
7	한동대	·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캠퍼스 구축을 목표로 한-영 공용캠퍼스 구현 · 외국인교수(16%→30%), 영어강의(40%→50%), 해외학생 출신국(55개→80개) · 지역 중소기업-스타트업 연계하여 해외 우수인재 선발 및 교육 제공
8	울산대	· WSU(Work&Study in Ulsan) 신설, 특화산업 학부생 유치, 미래 신산업대학원 진학 및 기업체 사전 기술교육 기회 제공하여 지역기업 전문인력으로 양성 * 차세대이차전지융합대학원, 탄소중립기술융합대학원, 의과학대학원 신설
9	순천대	· 동남아 해외캠퍼스 신설, 입학 전 사회문화적응·한국어교육 등 제공 · 지역특화분야 취업 시 가족정주형 기숙사 제공, 광양·여수 등 근접지역과 연계한 졸업생 정주시설 운영
10	전남대	· 해외캠퍼스(중국베트남) 2개 신설, 지역 주력산업 연계 공동학위과정 개설 · 유학생 대상 한국어·K-컬처엔테크 전공 신설, 외국인 정주시설(스포츠센터 등)
11	전북대	· 온라인(1년)으로 한국어·기초과목 수강 후 국내에서 전공이수하는 O2O(Online-to Offline) 국제캠퍼스 구축 · 호치민-전북대-전라북도-전주시가 공동 운영하는 국제캠퍼스 운영
12	충북대· 한국교통대	· 충북 10대산업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학·석사 연계과정 도입 · 외국인 유학생 해외대학(3년)+통합대학(2년) 과정 이수 시 국내 및 해외대학(미네소타대학, 이집트교통대학)의 학·석사 공동학위 취득

붙임4

세부 유학생 통계

※ 출처 : 매년 4.1. KEDI

□ 연도별 유학생 수

(단위 : 명)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1년대비 증감
학생수	91,332	104,262	123,858	142,205	160,165	153,695	152,281	166,892	+14,611

□ 과정별 유학생 수

(단위 : 명, %)

구 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계
	4년제	전문대	대학원	소계	어학연수	기타연수	소계	
2015년	31,377	1,595	22,767	55,739	22,178	13,415	35,593	91,332
⋮								
2018년	52,368	3,729	29,939	86,036	41,661	14,508	56,169	142,205
2019년	60,688	5,140	34,387	100,215	44,756	15,194	59,950	160,165
2020년	68,051	6,800	38,152	113,003	32,315	8,377	40,692	153,695
2021년	71,540	9,057	39,421	120,018	23,442	8,821	32,263	152,281
2022년	71,060 (42.6%)	9,928 (5.9%)	43,815 (26.3%)	124,803 (74.8%)	27,194 (16.3%)	14,895 (8.9%)	42,089 (25.2%)	166,892
21년대비증감	(△480)	(+871)	(+4,394)	(+4,785)	(+3,752)	(+6,074)	(+9,826)	(+14,611)

※ 기타연수 : 교환연수, 방문연수, 기타연수, 공동운영 교육과정 등 포함

□ 학제별·지역별 유학생 수

(단위 : 명, %)

구 분	2015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1년 대비 증감
전체	91,332	142,205	160,165	153,695	152,281	166,892	+14,611
학 제 별	4년제	86,146	129,749	146,285	139,366	149,576 (89.6%)	+12,266
	전문대	3,159	9,653	11,505	12,098	14,532 (8.7%)	+2,028
	대학원대학	2,027	2,803	2,375	2,231	2,784 (1.7%)	+317
지 역 별	수도권	53,349	80,957	86,887	83,022	97,157 (58.2%)	+12,174
	비수도권	37,983	61,248	73,278	70,673	69,735 (41.8%)	+2,437

□ 주요 출신국가별 유학생 수

(단위 : 명, %)

구분		중국	베트남	우즈벡	몽골	일본	미국	기타	계
2015년	4년제	52,318	4,031	1,000	2,855	3,422	2,946	21,601	88,173
	전문대	1,896	420	66	283	70	22	402	3,159
		⋮							
2018년	4년제	66,532	21,427	4,985	6,339	3,865	2,719	26,685	132,552
	전문대	2,005	5,634	511	429	112	27	935	9,653
2019년	4년제	69,188	30,385	6,752	7,015	4,242	2,888	28,178	148,648
	전문대	1,879	7,041	740	366	150	27	1,314	11,517
2020년	4년제	65,538	30,922	8,094	6,405	3,035	1,796	25,795	141,585
	전문대	1,492	7,415	1,010	437	139	31	1,586	12,110
2021년	4년제	65,992	28,179	7,028	5,650	3,666	2,183	27,064	139,762
	전문대	1,356	7,664	1,214	378	152	37	1,718	12,519
2022년	4년제	66,372 (43.6%)	29,099 (19.1%)	7,161 (4.7%)	6,673 (4.4%)	5,495 (3.6%)	3,338 (2.2%)	34,219 (22.5%)	152,357
	전문대	1,067 (7.3%)	8,841 (60.8%)	1,447 (10%)	675 (4.6%)	238 (1.6%)	33 (0.2%)	2,234 (15.4%)	14,535
'21년 대비 증감	4년제	(+380)	(+2,097)	(+133)	(+1,023)	(+1,829)	(+1,155)	(+7,155)	(+12,595)
	전문대	(△289)	(+1,177)	(+233)	(+297)	(+86)	(△4)	(+516)	(+2,016)

□ 출신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합계
2019년	138,343	7,157	3,040	2,535	951	255	160,165
2020년	141,232	5,925	2,761	2,601	877	299	153,695
2021년	138,343	7,157	3,040	2,535	951	255	152,281
2022년	147,338 (90.8%)	10,841 (4.7%)	4,480 (2.0%)	2,709 (1.7%)	1,214 (0.6%)	310 (0.2%)	166,892
'21년 대비 증감	(+8,995)	(+3,684)	(+1,440)	(+174)	(+263)	(+55)	(+14,611)

□ 유학형태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자비유학	대학초청	우리정부 초청	외국정부 파견	기타 (교환학생 등)	합계
2019년	146,247	8,147	2,943	548	2,280	160,165
2020년	141,397	6,390	2,971	323	2,614	153,695
2021년	139,161	6,291	3,262	258	3,309	152,281
2022년	151,628 (90.9%)	7,030 (4.2%)	4,062 (2.4%)	232 (0.1%)	3,940 (2.4%)	166,892
'21년 대비 증감	(+12,467)	(+739)	(+800)	(△26)	(+631)	(+14,611)

□ 지역별·과정별 유학생 현황('22)

(단위 : 명, %)

지역	합계		4년제		전문대		대학원		어학연수등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수도권	서울	71,970	43.1	31,768	44.7	104	1.0	19,355	44.2	20,743	49.3
	인천	2,966	1.8	1,454	2.0	221	2.2	436	1.0	855	2.0
	경기	22,221	13.3	8,777	12.4	3,563	35.9	5,554	12.7	4,327	10.3
	소계	97,157	58.2	41,999	59.1	3,888	39.2	25,345	57.8	25,925	61.6
非 수도권	부산	10,391	6.2	4,610	6.5	144	1.5	2,948	6.7	2,689	6.4
	대구	5,911	3.5	1,567	2.2	1,635	16.5	1,137	2.6	1,572	3.7
	광주	5,076	3.0	2,773	3.9	28	0.3	1,420	3.2	855	2.0
	대전	9,732	5.8	3,453	4.9	364	3.7	3,171	7.2	2,744	6.5
	울산	1,238	0.7	442	0.6	226	2.3	456	1.0	114	0.3
	세종	1,026	0.6	429	0.6	87	0.9	410	0.9	100	0.2
	강원	3,245	1.9	1,582	2.2	76	0.8	741	1.7	846	2.0
	충북	3,290	2.0	1,307	1.8	146	1.5	1,133	2.6	704	1.7
	충남	8,603	5.2	4,427	6.2	552	5.6	1,842	4.2	1,782	4.2
	전북	7,595	4.6	3,331	4.7	755	7.6	2,092	4.8	1,417	3.4
	전남	2,708	1.6	898	1.3	91	0.9	1,007	2.3	712	1.7
	경북	6,531	3.9	3,224	4.5	700	7.1	1,202	2.7	1,405	3.3
	경남	2,672	1.6	761	1.1	408	4.1	611	1.4	892	2.1
	제주	1,717	1.0	257	0.4	828	8.3	300	0.7	332	0.8
소계	69,735	41.8	29,061	40.9	6,040	60.8	18,470	42.2	16,164	38.4	
합계	166,892	100.0	71,060	100.0	9,928	100.0	43,815	100.0	42,089	100.0	

□ 주요대학 유학생 현황('22)

(단위 : 명)

연번	학교명	학위과정				어학연수	기타연수 (교환학생 등)	합계
		대학	대학원		소계			
			석사	박사				
1	한양대학교	3,275	1,577	590	5,442	854	703	6,999
2	경희대학교	3,206	2,202	258	5,666	799	447	6,912
3	성균관대학교	2,487	1,290	433	4,210	297	2,169	6,676
4	연세대학교	2,351	961	343	3,655	1,092	1,179	5,926
5	고려대학교	2,037	577	224	2,838	1,066	835	4,739
6	중앙대학교	2,819	959	291	4,069	284	358	4,711
7	한국외국어대학교	1,829	474	134	2,437	227	511	3,175
8	가천대학교	1,928	520	406	2,854	156	47	3,057
9	동국대학교	1,200	752	150	2,102	416	270	2,788
10	건국대학교	1,364	333	85	1,782	696	211	2,689
11	송실대학교	1,413	557	61	2,031	483	160	2,674
12	명지대학교	1,549	150	115	1,814	675	152	2,641
13	국민대학교	1,439	472	327	2,238	297	96	2,631
14	우송대학교	1,450	329	297	2,076	15	513	2,604
15	서울대학교	208	658	377	1,243	902	455	2,600
16	서강대학교	910	487	33	1,430	837	250	2,517
17	홍익대학교	1,287	538	121	1,946	412	88	2,446
18	서정대학교	2,142	-	-	2,142	297	-	2,439
19	세종대학교	899	494	441	1,834	315	150	2,299
20	이화여자대학교	766	639	117	1,522	292	339	2,153

□ 유학생 전공별(계열별) 현황('22, KEDI)

(단위 : 명)

위		학위과정										과정	계
		학부					석·박사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소계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소계		
1		23,645	3,014	1,391	6,533	34,583	16,301	1,799	1,104	6,734	25,938	6,918	67,439
2	베트남	17,781	3,315	1,515	759	23,370	2139	836	468	102	3,545	11,025	37,940
3	우즈베키스탄	4,903	1,452	428	328	7,111	881	179	49	29	1,138	359	8,608
4	몽골	1,545	632	246	476	2,899	1,537	151	131	82	1,901	2,548	7,348
5	일본	1,766	108	90	153	2,117	276	10	15	12	313	3,303	5,733
6	미국	549	61	65	57	732	434	56	76	36	602	2,035	3,369
7	프랑스	70	7	0	11	88	203	13	3	2	221	2,247	2,556
8	네팔	1,235	240	80	95	1,650	433	94	107	1	635	41	2,326
9	인도네시아	389	104	29	78	600	296	426	187	7	916	762	2,278
10	러시아	433	64	34	59	590	170	24	17	8	219	1,176	1,985
11	미얀마	308	171	94	57	630	237	43	60	5	345	794	1,769
12	대만	391	57	111	85	644	232	13	23	47	315	817	1,776
13	독일	76	6	1	4	87	59	10	6	4	79	1,485	1,651
14	방글라데시	433	139	20	3	595	296	229	169	2	696	48	1,339
15	인도	108	31	15	9	163	275	458	212	3	948	217	1,328

□ 세계 유학생 점유율

국가별 순위 ('20 기준)	국가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미국	18%	17%	*	15%
2	영국	8%	8%	8%	9%
3	호주	7%	8%	8%	7%
4	독일	5%	5%	5%	6%
5	캐나다	4%	4%	5%	5%
6	프랑스	5%	4%	4%	4%
7	중국	3%	3%	3%	4%
8	일본	3%	3%	3%	3%
9	UAE	*	*	4%	3%
10	튀르키예	2%	2%	3%	3%
11	네덜란드	2%	2%	2%	2%
12	아르헨티나	2%	2%	2%	2%
13	한국	1%	1%	2%	2%
14	말레이시아	2%	*	1%	1%
15	스페인	1%	1%	1%	1%

※ 출처 : 유네스코 통계국(UIS)

□ 세계 유학생 수 (단위 : 명, * 는 데이터 없음)

국가별 순위 ('20 기준)	국가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5,409,216	5,716,027	6,100,755	6,361,963
1	미국	984,898	987,314	*	957,475
2	영국	435,734	452,079	489,019	550,877
3	호주	381,202	444,514	509,160	458,279
4	독일	258,873	311,738	333,233	368,717
5	캐나다	209,979	224,548	279,168	323,157
6	프랑스	258,380	229,623	246,378	252,444
7	중국	157,108	178,271	201,177	225,100
8	일본	164,338	182,748	202,907	222,661
9	UAE	225,339	215,975
10	튀르키예	108,076	125,138	154,505	185,047
11	네덜란드	96,289	104,015	108,353	124,876
12	아르헨티나	88,873	109,226	116,330	121,577
13	한국	70,796	84,749	98,857	111,568
14	말레이시아	100,765	*	81,953	89,193
15	스페인	64,927	70,912	77,062	82,269

※ 출처 : 유네스코 통계국(UIS)

□ 고등교육기관 내 유학생 비율(OECD 2022 발표)

(단위 : %)

국가별 순위 (2020 기준)	국가명	2015년				2020년			
		학사	석사	박사	전체	학사	석사	박사	전체
	OECD - 전체	4.0	11.2	25.1	5.3	4.9	14.3	24.3	6.6
	OECD - 유럽	4.9	10.1	17.3	6.8	5.8	12.6	24.2	8.2
1	룩셈부르크	25.5	71.1	87.0	45.9	24.4	74.6	89.0	48.4
2	호주	13.3	42.6	33.8	15.5	15.5	49.8	33.4	26.0
3	영국	14.0	36.9	42.9	18.5	16.1	39.9	41.2	20.1
4	캐나다	9.9	13.6	29.9	11.0	14.4	20.1	35.8	18.2
5	스위스	9.8	28.5	54.3	17.2	9.8	29.5	56.6	18.1
6	오스트리아	18.4	19.0	27.0	15.9	18.6	23.4	36.8	18.0
7	뉴질랜드	16.0	24.3	46.2	21.1	14.5	33.8	49.3	17.5
8	체코	9.4	11.9	14.8	10.5	12.5	18.2	22.3	15.0
9	헝가리	5.0	14.1	7.2	7.1	10.3	21.1	25.5	13.5
10	네덜란드	8.7	15.1	36.2	10.2	11.3	19.3	47.9	13.3
11	라트비아	5.1	12.7	8.8	6.1	10.8	26.7	11.7	12.8
12	에스토니아	3.9	7.1	10.7	5.2	7.9	18.3	25.6	12.3
13	포르투갈	2.9	6.1	21.2	5.0	7.8	14.2	33.1	11.6
14	독일	4.7	12.9	9.1	7.7	7.0	17.1	23.1	11.2
15	벨기에	8.6	17.7	42.3	11.2	7.1	19.6	32.6	10.4
16	슬로바키아	4.5	7.7	9.1	5.9	9.4	11.9	11.6	10.3
17	덴마크	5.6	18.0	32.1	10.3	5.6	20.1	36.1	10.2
18	아일랜드	6.0	13.2	25.4	7.4	7.2	22.7	35.5	10.2
19	프랑스	7.3	13.3	40.1	9.9	7.0	13.0	37.9	9.2
20	아이슬란드	6.0	9.3	31.6	8.0	5.1	11.3	41.7	8.5
21	핀란드	5.2	12.3	19.9	7.7	5.5	10.5	25.0	8.0
22	슬로베니아	2.3	4.1	8.5	2.7	7.3	9.1	20.1	7.8
23	스웨덴	2.4	9.9	32.7	6.2	2.9	12.4	35.6	7.0
24	리투아니아	2.6	6.8	3.9	3.5	4.1	12.1	6.6	6.2
25	일본	2.4	6.8	18.2	3.4	3.2	10.5	20.9	5.7
26	미국	3.8	9.5	37.8	4.6	4.5	12.4	25.7	5.1
27	폴란드	2.4	3.3	1.9	2.6	4.0	5.2	7.9	4.5
28	노르웨이	2.1	6.6	20.6	3.6	2.5	7.2	22.7	4.4
29	스페인	0.8	7.1	0.0	2.7	1.6	10.6	19.2	3.8
30	한국	1.4	6.4	8.7	1.7	3.3	10.6	16.7	3.7
31	이스라엘	2.9	4.4	5.5	2.7	3.1	5.0	9.0	3.4
32	이탈리아	4.9	4.6	13.3	5.0	2.1	3.8	15.8	2.9
33	그리스	3.4	1.3	1.8	3.2	3.0	1.3	1.5	2.8
34	튀르키예	1.3	4.2	6.5	1.2	2.7	7.9	6.7	2.3
35	칠레	0.2	1.3	8.4	0.3	0.6	3.6	18.9	1.1
36	멕시코	0.2	0.7	2.6	0.3	0.7	2.3	7.9	0.9
non-OECD	브라질	0.2	1.2	2.5	0.2	0.2	0.8	2.2	0.2
non-OECD	콜롬비아	0.0	0.0	0.0	0.2	0.2	0.7	2.2	0.2

※ 출처 : OECD 교육지표(2017, 2022)